

“기름을 아끼자”

全 桓 炯 (京仁에너지 業務部)

人類은 오랜 옛날부터 石油를 사용한 痕迹이 있고, 19世紀 後半 近代石油産業이 일어난 後에도 램프用 및 棧械의 潤滑油 程度로 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旧韓末부터 所謂 西洋물이란 일컫는 石油(燈油)가 美國人들에 依하여 이 땅과 因縁을 맺게 됨에 따라, 우리의 先世어른들이 지금까지 使用하여 왔던 冬栢기름이나 들깨기름보다 곱이나 값이 싸고 불도 밝은 石油기름을 燈火用으로 使用하기 始作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直接 原油를 産油國으로부터 輸入하여 精製해서 수 많은 石油製品도 얻고, 그 製品을 産業用 에너지로 利用하여 많은 産業利益 또는 商業利益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처럼 동땅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化學製品을 뽑는 原料로 쓰거나, 總發電量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火力發電所의 燃料油 使用은 勿論, 우리가 늘 쓰는 볼펜에서부터 衣服等 모든 生活必需品에 이르기까지 石油가 안들어 간 곳이 없으니 石油의 偉大함은 實로 可恐할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不可缺한 石油를 지난해 1年 동안 1億8千萬배럴이라는 物量을 사우디, 쿠웨이트 등 産油國으로부터 輸入하였다 한다. 金額으로 따진다면, 61億6千萬달러 韓貨로 換算하면 4兆원이 넘는 돈으로, 서울 光化門 네 거리에 있는 教保빌딩 같은 建物을 수천채를 짓고도 남는 엄청난 額數라 한다. 昨年 總輸出額이 2百10億달러인데 反해 石油輸入에 쓴 돈이 69億달러로 總輸出額의 33%를 石油輸入을 爲해 産油國에 支拂하였으니, 이제 우리도 石油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産業構造의 時代에 살고 있음을 볼 때, 石油全盛時代를 누리고 있음직하다.

그런데 그 에너지 源이 되는 原油를 輸入해 오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73年度 OPEC 産油國의 갑작스런 油價의 大幅引上으로 말미암아 一部 消費國들의 原油 供給 中斷으로 우리는 第1次 石油波動을 맞았고, 이어 79年度의 第2次 石油波動, 이에 따라 低廉한 價格으로 供給되던 時代는 가고 엄청나게 비싼 價格으로 原油를 輸入해 오지 않으면 안되어 消費國 立場에 있는 우리는 그동안 經濟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今年들어 産油國의 過剩生産 및 世界經濟沈滯로 인한 消費減少에 따라 累積된 在庫로 油價는 繼續 不落勢에 있어 OPEC 및 非 OPEC 産油國들은 公示價格을 固守하려고 不斷히도 努力했지만, 油價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언제 또 第3次 石油波動을 맞게 될지 몰라 世界 消費國들은 油田開發, 石油備蓄 및 代替에너지 開發과 함께 에너지 消費節約이 汎國家적으로 展開되고 있어 우리도 그동안 江 건너 燈불 보듯해온 油國開發을 西海 및 南海에서 하고 있다. 大陸棚 石油探査 및 試錐作業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 모든 國民들이 鶴首苦待하고 있는 「검은黃金」이 팔팔 솟아 나와 우리들의 가슴을 鎔鋏爐처럼 뜨겁게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웬지 石油가 우리 땅에서는 異邦人처럼 느껴진다.

石油 /

옛 어른들은 호롱불 기름을 아끼려고 初저녁에만 잠깐 불을 켜다 한다. 우리는 現在 豊足한 삶을 領有하고 있기에 消費節約이라는 낱말을 조금씩 喪失해 가고 있는 것 같다.

現在 우리 國家의 어려운 經濟 難局을 헤쳐나가는 길은 첫째 消費節約, 둘째도 消費節約, 셋째도 역시 消費節約 뿐이다. *